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6 주차 (8:31-8:47)

(2015년 5월 10일 - 2015년 5월 16일)

(제3권 16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5 월 1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일)

### 오늘의 본문 (요 8:31~36)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 원문해석하기

- (30절)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Ταῦτα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31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ἔλεγ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πρὸς τοὺς πεπιστευκότας αὐτῷ Ἰουδαίους·)  
만약 당신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ἐὰν ὑμεῖς μείνητε ἐν τῷ λόγῳ τῷ ἐμῷ),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입니다 (ἀληθῶς μαθηταὶ μου ἔστε)
- (32절) 그리고 당신들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καὶ γνώσεσθε τὴν ἀλήθειαν),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καὶ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 (33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πρὸς αὐτόν·)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σπέρμα Ἀβραάμ ἐσμεν)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때에도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시다 (καὶ οὐδενὶ δεδουλεύκαμεν πώποτε·)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πῶς σὺ λέγεις ὅτι ἐλεύθεροι γενήσεσθε;)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ὅτι πᾶς ὁ ποιῶν τὴν ἁμαρτίαν δοῦλός ἐστιν τῆς ἁμαρτίας.)
- (35절) 종은 그 집에 영원까지 거하지 못합니다 (ὁ δὲ δοῦλος οὐ μένει ἐν τῇ οἰκίᾳ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아들은 영원까지 거합니다 (ὁ υἱὸς μέν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36절) 따라서 만약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케 한다면 (ἐὰν οὖν ὁ υἱὸς ὑμᾶς ἐλευθερώσῃ),  
참으로 당신들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ὄντως ἐλεύθεροι ἔσεσθ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0 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흔들려 예수님을 믿을만한 분으로 잠시 착각했던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대화내용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들은 나의 진실된 제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εάν, 에안)이라는 단어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들 자신의 의지로 말씀 안에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할 수 있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가정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들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설득은 되었지만 좀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자 이내 예수님의 대적자로 되돌아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머물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 (ἀληθῶς μαθηταί, 알레도스 마테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란 단순히 지식을 전수받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지식뿐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도 그대로 전수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살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실천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대신 그 완성한 그 율법을 기쁘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무감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참된 제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가요?

3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이어가십니다. “당신들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할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교회의 표어로 많이 쓰일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31 절과 32 절을 따로 떨어진 문장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글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31 절과 32 절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즉, 두 절 모두가 “당신들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조건에 걸려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다음 세 가지 현상이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첫째,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둘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로는 진리를 ‘안다’(know)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오이다’(οἶδα)가 아닌, 몰랐던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realize)는 뜻을 가진 ‘기노스코’(γινώσκω)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들리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억지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그 진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자들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모습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들어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인간들이 억지로 자유를 만들어내거나 자유한 것처럼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죄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곧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 장 16 절에서 18 절을 읽겠습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sup>17</sup>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시니라<sup>18</sup>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6-18).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나 현재의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그대로 용납되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직도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나 상태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진리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31 절과 32 절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가?” “나는 진리를 깨달았는가?”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이 모든 질문에 답이 ‘예’이면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중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30~36)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 원문해석하기

- (30절)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Ταῦτα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31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ἔλεγ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πρὸς τοὺς πεπιστευκότας αὐτῷ Ἰουδαίους·)  
만약 당신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ἐὰν ὑμεῖς μείνητε ἐν τῷ λόγῳ τῷ ἐμῷ),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입니다 (ἀληθῶς μαθηταὶ μου ἔστε)
- (32절) 그리고 당신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καὶ γνώσεσθε τὴν ἀλήθειαν),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καὶ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 (33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πρὸς αὐτόν·)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σπέρμα Ἀβραάμ ἐσμεν)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때에도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시다 (καὶ οὐδενὶ δεδουλεύκαμεν πώποτε·)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πῶς σὺ λέγεις ὅτι ἐλεύθεροι γενήσεσθε;)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ὅτι πᾶς ὁ ποιῶν τὴν ἁμαρτίαν δοῦλός ἐστιν τῆς ἁμαρτίας.)
- (35절) 종은 그 집에 영원까지 거하지 못합니다 (ὁ δὲ δοῦλος οὐ μένει ἐν τῇ οἰκίᾳ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아들은 영원까지 거합니다 (ὁ υἱὸς μέν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36절) 따라서 만약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케 한다면 (ἐὰν οὖν ὁ υἱὸς ὑμᾶς ἐλευθερώσῃ),  
참으로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ὄντως ἐλεύθεροι ἔσεσθ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들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을 것이며,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나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뜸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때에도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며 대꾸합니다. 이들의 말투를 보면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불리 이들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이들이 한 말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번도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과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그들의 지난간 역사를 통틀어 언급한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들의 처지에 관한 언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아닌 엄연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말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할때 비로소 자유함이 찾아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 실제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일상 생활에 그다지 속박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30 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예수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정도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25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sup>23</sup>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sup>24</sup>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sup>25</sup>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 2:23-25).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은 두 방향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서 발현된 믿음으로 달리 말하면 인간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각기 자신들의 고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 체계는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것이 어찌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가르침과 맞아 떨어지면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의 행위를 맞추어 살면서 스스로의 확신을 키워가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측에서 발현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대로 해석하여 결국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된 믿음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벗어나려 해본들 결국에는 그리스도안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들을 움아매고 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분들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세상적 가치를 송두리채 벗어 던진 사람도 있으며, 자신의 옳다고 믿던 신념을 과감히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자신을 자유롭게 한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개인적으로는 무엇에 얽매어 있었으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나요?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3 절 후반절을 다시 한 번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고 하지도 않았고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미 자유인인 자신들더러 어떻게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지 그 사실에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유롭게 되려면 지금 어딘가에 얽매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은 그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힐문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진리를 접할 때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리를 접하기 전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에 얽매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얻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며 그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처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절대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에 관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자기 죄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게 하나님께 피해를 주나요? 왜 하나님이 그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으셔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다루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도덕책 수준 정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자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짓지 않았던 중대한 도덕적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기준을 열심히 실천해서 목

표치에 다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케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달성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물인 예수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후자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 하는 율법의 의를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율법의 굴레를 온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나님의 의를 경시하고 있나요?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30~36)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 원문해석하기

- (30절)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Ταῦτα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31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ἔλεγ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πρὸς τοὺς πεπιστευκότας αὐτῷ Ἰουδαίους·)  
만약 당신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ἐὰν ὑμεῖς μείνητε ἐν τῷ λόγῳ τῷ ἐμῷ,)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입니다 (ἀληθῶς μαθηταὶ μου ἔστε)
- (32절) 그리고 당신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καὶ γνώσεσθε τὴν ἀλήθειαν,)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καὶ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 (33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πρὸς αὐτόν·)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σπέρμα Ἀβραάμ ἐσμεν)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때에도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시다 (καὶ οὐδενὶ δεδουλεύκαμεν πώποτε·)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πῶς σὺ λέγεις ὅτι ἐλεύθεροι γενήσεσθε;)
-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ὅτι πᾶς ὁ ποιῶν τὴν ἁμαρτίαν δοῦλός ἐστιν τῆς ἁμαρτίας.)
- (35절) 종은 그 집에 영원까지 거하지 못합니다 (ὁ δὲ δοῦλος οὐ μένει ἐν τῇ οἰκίᾳ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아들은 영원까지 거합니다 (ὁ υἱὸς μένε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36절) 따라서 만약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케 한다면 (ἐὰν οὖν ὁ υἱὸς ὑμᾶς ἐλευθερώσῃ,)  
참으로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ὄντως ἐλεύθεροι ἔσεσθ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4 절을 읽으십시오. 진리가 자신들을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힐문을 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종노릇하는 그들의 실상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종(δουλός, 들로스)을 사회적, 계급적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종입니다.”가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거친 결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행하는 모든 사람’(πῶς ὁ ποιῶν τὴν ἁμαρτίαν, 파스 호 포이온 텐 하마르티안)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되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행동 하나 하나가 전부 죄에 해당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 의미의 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명제 속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32 절과 33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만약 당신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참으로 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7:32 하~33).

바로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게 되고 마침내 ‘죄의 종’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 논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진리를 모른채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을 죄의 종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진짜 진리는 모르고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즉 힘써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한 모든 행동 하나 하나가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행여라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회초리를 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와 율법, 속박과 자유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니까요. 당신은 어떤가요?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당신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에 얽매어 있는 종인가요? 이도 저도 아니면 율법과 은혜사이를 정처없이 왔다갔다하는 사람인가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3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좋은 그 집에 영원까지 거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영원까지 거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과 아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 장에서 말한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종과 아들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sup>2</sup>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sup>3</sup>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sup>4</sup> 때가 차매 하나님<sup>5</sup>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sup>5</sup>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sup>6</sup>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sup>7</sup>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sup>7</sup>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sup>8</sup>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sup>9</sup>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sup>9</sup>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갈 4:1-9).

우리 모두는 아들이 아니라 다 율법 아래 있는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지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로 옮겨진 것이고, 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종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돌아가 그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 장 10 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죄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범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얽매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6 절을 읽으십시오.

“따라서 만약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케 한다면, 참으로 당신들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들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

켜 자유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완성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정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이루신 것이지요. 당신은 자유합니까? 그 자유가 아무런 희생없이 거저 당신에게 온 것이 맞나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인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신앙의 기준은 말씀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37~43)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 원문해석하기

- (37절) 나는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σπέρμα Ἀβραάμ ἐστε·)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ἀλλὰ ζητεῖτέ με ἀποκτεῖναι.)  
왜냐하면 나의 말이 당신들 안에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ὁ λόγος ὁ ἐμὸς οὐ χωρεῖ ἐν ὑμῖν.)
- (38절) 나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합니다 (Ἄ ἐγὼ ἑώρακα παρὰ τῷ πατρὶ λαλῶ·)  
그래서 당신들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οὖν ἄ ἠκούσατε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ποιεῖτε.)
- (39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ὁ πατὴρ ἡμῶν Ἀβραάμ ἐστι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에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εἰ τέκνα τοῦ Ἀβραάμ ἐστε·)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τὰ ἔργα τοῦ Ἀβραάμ ἐποιεῖτε·)
- (40절)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νῦν δὲ ζητεῖτέ με ἀποκτεῖναι)  
당신들에게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 (ἄνθρωπον ὃς τὴν ἀλήθειαν ὑμῖν λελάληκα·)  
그 진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입니다 (ἦν ἠκούσα παρὰ τοῦ θεοῦ·)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τοῦτο Ἀβραάμ οὐκ ἐποίησεν.)
- (41절)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ὑμεῖς ποιεῖτε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ὸς ὑμῶν.)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ἡμεῖς ἐκ πορνείας οὐ γεγενήμεθα·)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ἓνα πατέρα ἔχομεν τὸν θεόν·)
-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였다면 (εἰ ὁ θεὸς πατὴρ ὑμῶν ἦν)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ἠγαπήσατε ἂν ἐμέ,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ἐγὼ γὰρ ἐκ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καὶ ἦκω·)  
 나는 스스로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니다 (οὐδὲ γὰρ ἀπ' ἐμαυτοῦ ἐλήλυθα),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니다 (ἀλλ' ἐκεῖ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43절)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διὰ τί τὴν λαλίαν τὴν ἐμὴν οὐ γινώσκετε;)  
 이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니다 (οἳ οὐ δύνασθε ἀκούειν τὸν λόγον τὸν ἐμό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하고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요 5:18 참조). 그런데 37 절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7 절하반절).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에 연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가 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2~13).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그 의미가 좀더 명확해집니다.

┌ 지금도 유효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로고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 마음의 의도와 사상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이르기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 그 앞에 숨겨질 피조물이 없다. 그리고 만물이 우리에게 정산을 받으실 그를 향하여 그의 눈앞에 나신으로 벌거 벗겨져 정체가 드러난다.

이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이성적 의지나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37 절 후반절 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이 당신들 안에 자리하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ὁπὸ λόγος ὁ ἐμὸς οὐ χωρεῖ ἐν ὑμῖν.) 에서 주어는 ‘나의 말’ (ὁ λόγος ὁ ἐμὸς, 호 로고스 호 에모스)입 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하지 않았다고 하셨지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자 하신다 면 그들의 의지 하나 꺾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지는 않으니깐요. 여기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롬 9:18).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 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 리에겐 받아들이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입니다. 하나 님의 구속사에서 유대인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마 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 유대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롬 9:19).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그들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죽음에 넘겨주었 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 보지 못하게 하 신 거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시겠냐는 질문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 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신 일에 대해 피 조물인 인간들이 감히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 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 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아 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롬 9:20-24).

이런 내용을 접하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의 사고 체계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우리의 합리적 사고가 무너지고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공평 해 보이는 말씀이 진리로 여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내 속에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 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이들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 서든지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실 수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37~43)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니로다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 원문해석하기

- (37절) 나는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σπέρμα Ἀβραάμ ἐστε·)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ἀλλὰ ζητεῖτέ με ἀποκτεῖναι·) 왜냐하면 나의 말이 당신들 안에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ὁ λόγος ὁ ἐμὸς οὐ χωρεῖ ἐν ὑμῖν·)
- (38절) 나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합니다 (Ἐγὼ εἶπα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λαλῶ·) 그래서 당신들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οὖν ἠκούσατε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ποιεῖτε·)
- (39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ὁ πατὴρ ἡμῶν Ἀβραάμ ἐστι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에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εἰ τέκνα τοῦ Ἀβραάμ ἐστε·)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τὰ ἔργα τοῦ Ἀβραάμ ἐποιεῖτε·)
- (40절)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νῦν δὲ ζητεῖτέ με ἀποκτεῖναι·) 당신들에게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 (ἄνθρωπον ὃς τὴν ἀλήθειαν ὑμῖν λελάληκα·) 그 진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입니다 (ἦν ἠκούσα παρὰ τοῦ θεοῦ·)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τοῦτο Ἀβραάμ οὐκ ἐποίησεν·)
- (41절)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ὑμεῖς ποιεῖτε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ὸς ὑμῶν·)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ἡμεῖς ἐκ πορνείας οὐ γεγενήμεθα·)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ἓνα πατέρα ἔχομεν τὸν θεόν·)
-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였다면 (εἰ ὁ θεὸς πατὴρ ὑμῶν ἦν·)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ἠγαπήσατε ἄν ἐμέ.)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ἐγὼ γὰρ ἐκ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καὶ ἦκω.)

나는 스스로로부터 오지 않았습시다 (οὐδὲ γὰρ ἀπ' ἐμαυτοῦ ἐλήλυθα.)

그가 나를 보내셨습시다 (ἀλλ' ἐκεῖ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43절)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διὰ τί τὴν λαλίαν τὴν ἐμὴν οὐ γινώσκετε.)

이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ἳ οὐ δύνασθε ἀκούειν τὸν λόγον τὸν ἐμὸ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한다면)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들은 것은 거짓이고 그 거짓에 바탕을 둔 행위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해도 거짓 행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은 유대의 전통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이 모두 거짓이며, 그 거짓을 말한 조상들은 ‘마귀’(대적자)라고 말합니다(요 8:44 참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고스란히 담긴 진리라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아버지, 즉 육신의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것들이 진리여야 하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진리’란 진리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이해되고 그렇게 왜곡된 말씀이 삶에 적용된다면 인간들이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게 보여도 그것은 비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온 교회의 전통들, 각종 문화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스며든 세상적 가치들을 성경 말씀, 즉 진리 위에 덧입히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이 유일하게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 주변에서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9 절과 40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당신들에게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그 진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에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한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 절을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 3:9).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4 장 1 절~5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sup>2</sup>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sup>3</sup>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sup>4</sup>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sup>5</sup>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4:1-5).

결국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무력하여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을 그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믿은 것 밖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를 둔 것이지 자신들의 생각이나 율법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고 있나요?

40 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말한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로 번역하여 목적어를 부사처럼 번역했는데 이렇게 보다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느니라가 좀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시 대명사이니 분명히 앞에 나온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 문장 전체를 받아 아브라함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이 입증되는 거니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도덕적 행위나 신비한 체험적 현상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나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곧 그 사람이 온전히 진리 위에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회적인 현상일 뿐이고 오직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 장 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 더 힘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체면이나 의로움을 세우는 데 힘쓰느라 예수님을 아는 일은 뒷편으로 슬그머니 밀어 두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라면...(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37~43)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 원문해석하기

- (37절) 나는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σπέρμα Ἀβραάμ ἐστε·)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ἀλλὰ ζητεῖτέ με ἀποκτεῖναι·) 왜냐하면 나의 말이 당신들 안에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ὁ λόγος ὁ ἐμὸς οὐ χωρεῖ ἐν ὑμῖν·)
- (38절) 나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합니다 (Ἄ ἐγὼ ἑώρακα παρὰ τῷ πατρὶ λαλῶ·) 그래서 당신들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οὖν ἄ ἠκούσατε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ποιεῖτε·)
- (39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ὁ πατὴρ ἡμῶν Ἀβραάμ ἐστι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에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εἰ τέκνα τοῦ Ἀβραάμ ἐστε·)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τὰ ἔργα τοῦ Ἀβραάμ ἐποιεῖτε·)
- (40절)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νῦν δὲ ζητεῖτέ με ἀποκτεῖναι·) 당신들에게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 (ἄνθρωπον ὃς τὴν ἀλήθειαν ὑμῖν λελάληκα·) 그 진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입니다 (ἦν ἠκούσα παρὰ τοῦ θεοῦ·)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τοῦτο Ἀβραάμ οὐκ ἐποίησεν·)
- (41절)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ὑμεῖς ποιεῖτε 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ὸς ὑμῶν·)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ἡμεῖς ἐκ πορνείας οὐ γεγενήμεθα·)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ἓνα πατέρα ἔχομεν τὸν θεόν·)
-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만약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였다면 (εἰ ὁ θεὸς πατὴρ ὑμῶν ἦν·)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ἠγαπήσατε ἂν ἐμέ.)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ἐγὼ γὰρ ἐκ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καὶ ἦκω.)

나는 스스로로부터 오지 않았습시다 (οὐδὲ γὰρ ἀπ' ἐμαυτοῦ ἐλήλυθα.)

그가 나를 보내셨습시다 (ἀλλ' ἐκεῖ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43절)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διὰ τί τὴν λαλίαν τὴν ἐμὴν οὐ γινώσκετε.)

이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시다 (οἳ οὐ δύνασθε ἀκούειν τὸν λόγον τὸν ἐμὸ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1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진리에 기반한 믿음의 자녀들과 인간들의 전통이나 유전에 기반한 비진리를 쫓는 자들 사이에는 그들을 구분하는 분명한 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 여긴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 즉 그들이 따르고 신봉하는 그 진리를 만들어낸 주체가 바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도 황당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 (πορνεία, 포르네이아)이란 ‘간음을 통해 태어난 사생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간음을 통해 낳은 사생아들처럼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을 변호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들어 그분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였기에 실제로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생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라고 빈정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보기에 는 논리적으로나 정황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두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정도로 취급했기에 그랬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뒤 이어 48 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보면 이런 추론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즈음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모태 신앙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데 가장 확실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 한마디에 신앙의 정통성 시비는 이내 사그라지고 맙니다. 다음으로 어느 교파에 속했다느니 어느 교회에 다닌다느니 등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등등 자신이 속한 교파가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름난 대형 교회에 출석한다



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평생 듣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합니까?

41 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앞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라면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고, 율법을 가졌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42 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지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였다면,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앞서서도 몇 번 언급한 바 있지만 헬라어에서 ‘에이’(εἰ)가 이끄는 조건문은 100% 불가능하거나 또는 100% 확실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100%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지식적으로 구세주로 알고 믿어 구원을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100%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첫 번째 조건이 성취되면 반드시 두 번째 조건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42 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설령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고 하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정작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는 관점과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

상,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주셔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일종의 자문자답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기 때문이니까요. 당신은 진정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복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였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진리의 부제와 사탄의 자녀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44~47)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 원문해석하기

- (44절) 당신들은 그 아버지, 즉 그 대적하는 자(사탄), 으로부터 존재했습니다  
(ὁμοίως ἐκ τοῦ πατρὸς τοῦ διαβόλου ἐστὲ)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의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καὶ τὸς ἐπιθυμίας τοῦ πατρὸς ὑμῶν θέλετε ποιεῖν.)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ἐκεῖνος ἀνθρωποκτόνος ἦν ἀπ' ἀρχῆς)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있지 않았습다 (καὶ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οὐκ ἔστηκεν.)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ἔστιν ἀλήθεια ἐν αὐτῷ.)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ὅταν λαλήῃ τὸ ψεῦδος.)  
그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ἐκ τῶν ἰδίων λαλεῖ.)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ψεύστης ἐστὶν καὶ ὁ πατὴρ αὐτοῦ.)
- (45절) 그러나 내가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ἐγὼ δὲ ὅτι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οὐ πιστεύετε μοι.)
- (46절) 당신들 중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지적할 것입니까? (τίς ἐξ ὑμῶν ἐλέγχει με περὶ ἁμαρτίας.)  
만약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εἰ ἀλήθειαν λέγω.)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인가요? (διὰ τί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μοι.)
- (47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ὁ ὢν ἐκ τοῦ θεοῦ τὰ ῥήματα τοῦ θεοῦ ἀκούει.)  
이런 이유로 당신들은 듣지 않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ὑμεῖς οὐκ ἀκούετε.)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κ τοῦ θεοῦ οὐκ ἐστέ.)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근본을 건드리십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마귀’로 번역되어

있는 ‘디아블로’(διάβολος)라는 말은 인간들과는 다른 어떤 사악한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망나니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로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초대 교회가 막 생겨나고 예루살렘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의 핍박 또한 그도를 점점 더해 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그들이 속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sup>35</sup>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sup>36</sup>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sup>37</sup>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쫓아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sup>38</sup>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sup>39</sup>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행5:35-39).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당시 캐톨릭 지도자들은 루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단 사상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대부분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번영신학,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늘 깨어서 정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44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자인 이유를 예수님은 진리와 비진리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순환 논리처럼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비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진리 안에서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의 자기들이 직접 실천함으로써 진리에 다다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이 땅에 내려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신 그 진리는 그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해왔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뿌리는 거짓, 즉 비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악하거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악 체계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옳고 선하고 좋게 보이는 그것들이 거짓, 즉 비진리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과 악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은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악을 끼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 소리를 들은 유일한 이유는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아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내가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서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리 앞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과 도리를 설명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비결을 말씀하셨더라면 그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진리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진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알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중심의 복음에서 사람 중심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인본주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이 현실적인 삶의 안위와 번영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곧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